

모녀의 삶이 담긴 유치원, 어려운 환자를 위해 내어놓다



김해련 전 속초 새싹유치원 원장은 모녀가 함께 운영해 온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서울아산병원에 후원했다.

지난 2월, 강원도 고성 지역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김해련 원장은 일주일 내내 집을 나서지 못했지만, 마음은 여느 때보다 여유로웠다. “이사 오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눈이 참 예쁘게 오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눈이 오면 유치원 버스가 제 시간에 움직일 수 있을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을지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눈 때문에 길이 막히면 트랙터를 얻어 타고 서라도 무조건 일찍 출근했지요.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으니 마음 편하게 눈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속초 새싹유치원을 경영해 온 김해련 원장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2021년 어렵게 폐원을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하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불우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모두 기부한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딸로 42년간 이어진 새싹유치원

속초 새싹유치원은 그의 어머니인 고(故) 최옥분 이사장이 1979년 설립한 사립 유치원이다. 최옥분 이사장은 6.25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본 것을 시작으로 평생을 유아교육에 헌신했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에도 늘 저와 함께 유치원에 나와서 아이들을 지켜보셨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집에서 쉬시라고 저 혼자 출근했더니 너무 서운해하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유치원 걱정을 하셔서 ‘하나뿐인 딸은 걱정도 안 하나, 너무 섭섭하다’고 했더니 ‘너는 네가 알아서

잘 살거니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유아교육을 사명으로 여기고 헌신한 어머니와 달리, 김해련 원장은 처음에는 유치원에 관심이 없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속초로 온 것도 그저 어머니 곁에 있기로 마음먹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곧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그를 사로잡았다. 좋은 교육법을 배워 아이들을 가르치니 금세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아이들이 변하니 학부모들의 신뢰도 두터워졌다. 둘째, 셋째도 유치원에 보내며 10년 가까이 만나는 학부모들도 생겼다. 이미 유치원을 졸업한지 오래지만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곧 결혼한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학부모들도 많았다. 자연스럽게 김해련 원장의 책임감도 점점 무거워졌다.

“남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꼭 어른들 눈치를 보거든요. 그때 ‘하면 안돼’ 말해주면 바로 그만둬요. 그건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젊은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마당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이면 꼭 함께 나갔죠. 다행히 다치는 사고도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 지킴이를 자처한 김해련 원장, 그리고 몸이 아파도 늘 유치원에 나와 아이들을 지켜본 최옥분 이사장. 어머니와 딸의 시작은 달랐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 닮았다.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돕기 위해

김해련 원장은 40대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왔다. 그리고 2018년 어머니의 사망 후 유산을 정리하며 사회 환원을 고민했다. 생전에 어머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기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며 그의 선택을 지지했다. 그 무렵 친구의 소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다. “건강부터 챙기라고 친구가 예약해준 건데, 진료를 받으며 후원안내 팸플릿을 봤어요. 몸도 아픈데 가난해서 병원을 못 가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지요.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선 정리한 유산으로 서울아산병원에



김해련 원장은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우 환자들을 돕기 위해 후원을 결심했다.

후원을 했어요.”

첫 후원은 곧 두 번째 후원으로 이어졌다. 김해련 원장은 2년 뒤 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치원 폐원과 기부하는 유치원 재단법인의 결정은 물론 교육청의 승인도 필요했다. 흔치 않은 사례이기에 법률적 검토와 절차를 거쳐 약 7개월 만에 후원이 이뤄졌다.

모녀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유치원이니 아쉬울 법도 하지만 김해련 원장은 ‘오히려 흥겨운 기분’이라고 말한다. 그나마 조금 남아 있던 유치원 앨범과 관련 물건도 자신의 연구노트만 남기고 작년에 전부 처분했다. “유치원을 폐원한다고 하니까 세를 놓으라고도 하고, 편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 몫을 챙긴다고 해도 발뺌고 편하게 살지 못할 거 같았어요. 저는 식구도 없고 혼자니까 굳이 남겨둘 것도 없고, 더 많은 게 필요하지도 않고요.” 마지막으로 김해련 원장은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좋은 일에 잘 써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신뢰를 보냈다. 🍷

글 편집부